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2. 11.
북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2. 29. 황선화 의원(대표발의)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 나. 회부일자: 2022. 1. 27.
- 다. 상정일자: 2022. 2. 10.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이유

정보취약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 수준이 낮는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자정보 계통인 점자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는 있으나 행사, 영상, 장면, 관광 등 실시간 시각정보의 경우 이를 습득하는 것에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에 현장상황을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안 제4조)
- 라.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라. 입법예고(2022. 1.21.~1.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시각정보를 습득하는데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 관광 등 현장상황이나 강의, 영상 등에 대하여 읽어주거나 장면 해설 등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주변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핵심용어인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정의함.

특히,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는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이외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표현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 등 (안 제5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중 일반적으로 ‘점자’를 많이 생각하여 관광지, 박물관 등에도 점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사실 시각장애인의 70~80%는 후천적 장애를 얻은 이들로 점자를 읽기 어려워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비율은 5.2%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축제나 행사 참여 시 이에 대한 해설이 없으면 시각 정보 습득에 제한이 많아 현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여 영상해설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 현장해설이란 현장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방향 그리고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 참여시 현장의 모든 것을 눈앞에 보이듯 실시간으로 전달 받도록 하여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약 25만명이며 성동구의 시각장애인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 문화, 여가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2017년 : 생활만족도 3.2점,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3.0

구 분	가족관계	친구들수	살고 있는곳	건강상태	한달수입	여가활동	하고 있는일	결혼생활
2020년	3.8	3.3	3.6	2.8	2.8	2.9	3.4	3.7
2017년	3.8	3.4	3.6	2.7	2.7	3.0	3.5	3.7

※성동구 등록장애인 현황

*2021.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등록장애인수	11,284	5,061	1,135	1,809	696	1,142	195	407	487	32	320
심한장애인 (1,2,3급)	3,853	830	194	384	696	640	195	407	368	26	113

○ 본 조례는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시설 설치 및 현장해설 전문 인력 양성,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단순히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각 장애인의 공연·예술 관람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사)한국영상해설협회가 시각장애인 문화생활 영상해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재)서울다누림관광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내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영상해설사¹⁾에 관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수시로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노원구, 서대문구, 중구 등 3개의 자치구 및 대구시 중구와 충남 서산시 등 총 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²⁾ (2022. 1. 24. 기준)

1) 상세한 관광 정보와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의 관광 등 활동이 보다 풍부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전문 해설 인력

2)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으로 검색

○ 「장애인복지법」 제22조³⁾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지향하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의 근본적 이념의 실현을 담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체험한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질 높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정안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 3)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